



노치형 목사
(중증로공동체)

2025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

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설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나누다면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격려'입니다. 이번 설에는 서로의 주장과 신념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위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파로 고통받고 있었던 고린도교회를 향해 위로가 필요함을 말하며, 이를 위해 ‘참된 위로’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선포합니다(고후 1:3-4a).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란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옷을 입으신 사건’ (창 3:21) 이후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 받고 누리기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란과 분열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위로의 은혜를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넘치는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견디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죄 사함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과거에도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끝까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 본받아 실천하기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의 삶을 본받아 서로 위로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행 4:36)와 ‘위로자’라는 뜻으로 그들과 함께 사역한 안디옥교회의 교사 마나엔(행 13:1) 같은 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보낸 간절한 기도(롬 15:5-6)를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에게서는 더는 헛된 마음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위로의 사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온전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위로를 마음껏 누린 다음 ‘서로 위로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복(福)’을 더 많은 영혼과 풍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행 9:31)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새413, 통470).....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3~11.....	가족 중에서
설교	서로 위로할 때 누리는 복(福).....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새419, 통478).....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서로 위로할 때 누리는 복(福)

현실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면 주변에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

로란 ‘고달픔을 풀도록 따뜻하게 어루만져 괴로움과 슬픔을 잊게 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선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진심으로 행할 때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위로와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17:1~2.....	다같이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새272, 통330).....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히브리서> 12:1~4.....	가족 중에서
설교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설교자
찬송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새458, 통513).....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새해를 맞아 가장 고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문득 ‘자유(自由)’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는 살아온 인생에서 절대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큰 아쉬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한 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진리가 너

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1~32).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인류는 거짓과 죄악에 얽매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거짓의 어두움과 싸워 이겨내는 진리의 빛’(고후 6:3~10)과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정결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히 10:12~22)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 승리 향해 달려가는 자유함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사 43:18~19a)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순간부터 ‘과거’가 아닌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앞에 놓여 있는 구체적인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거짓과 죄악과 싸워야 하는 힘든 것’이며, 이를 얻기 위해 ‘경주 중에 꺾여내야 할 수 치와 핍박의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갈 때 오직 부활의 승리를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유함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을 닮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얹매고 있던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흘 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서 자칫 놀릴 수지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진정한 자유’를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